

잠못 이루는 의사 선생님들

을 겨울 광주·전남지역 의사들은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예년 같으면 1~2월은 겨울방학과 휴가철 특수를 누리며 밀려드는 환자들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만 이젠 '아 옛날이여'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불황이 본격화되면서 환자가 급감함은 물론 낮은 대출 이자와 환율 때문에 빌려 썼던 엔화가 끝을 모르고 오르면서 숨통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병·의원들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중대형병원과 의원들이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청구한 진료비청구액을 보면 상당 수가 전년에 비해 5~10% 가량 감소했다.

특히 경기 침체의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물들어서는 환자 감소 폭이 한층 두드러지고 있다.

환자 급감·환율 폭탄 병원들 빚더미

대출 막히고 엔화 이자 부담 눈덩이

여기에 가파른 환율상승이 더해지면서 의사들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다.

대다수 병원들이 환자 감소와 엔화 대출 이자 폭등 등 '2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물론 일부 병원들은 부동산(건물) 값의 하락 등으로 병원의 가치가 떨어지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 마저 받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002년 일부 병원들이 엔화를 차입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2007년에는 대다수 중대형병원이나 전문병원들이 건물 신축이나 의료기기 구입을 위해 엔화를 빌려왔다.

당시 엔화는 100엔당 800원~1천원에, 이자도 국내 금리(6~7%) 보다 훨씬 저렴한 1.5% 내외였다.

그러나 올 2월 현재 엔화는 100엔당 1천 500원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대출 금리도 6%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10억원 정도를 빌린 소규모

병원이나 한방병원들은 환율상승으로 갚아야 할 원금이 14~16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5억원~10억원에 달하는 CT나 20~30억원 가량 나가는 MRI를 엔화로 구입한 중대형병원들도 매달 부담해야 할 이자가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역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재 병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의료상황을 감안,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올 6월을 전후해 '병원대란(?)'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 A병원은 4년 전 10억원을 엔화로 빌렸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서 원금이 16억원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달 150만원 정도였던 이자를 500만원 가량이나 내고 있다. 여기에 은행이 원금 상환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테여서 자칫 병원을 은행에 넘겨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있다.

2년전 수십억원을

엔화로 빌려 건물을

신축한 광주B병원은 줄어드는 환자에 이자 만도 추가로 수천만원을 내야 하는 '환율폭탄'을 맞았다.

이와 함께 수입에 의존하는 수술재료 등도 환율 상승에 편승하면서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유방 성형수술시 넣는 '백' 같은 재료는 10여만원이 올랐고, 수술 봉합사나 각종 성형·피부 보형물 등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피부·성형외과들은 한 명의 환자라도 불잡기 위해 오히려 수술비를 10~30% 가량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의 한 병원 원장은 "3년 전에 중형병원이나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병원들은 거의 모두가 엔화를 빌었다"면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50억원 이상은 빌린 곳도 있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장한 병원들은 고율의 이자와 늘어난 원금으로 경영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체험증기자 chae@kwangju.co.kr



봄이 오는 소리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꽃 재배 단지에서 봄을 예감하듯 샷노랗게 꽂을 피워올린 비올라에 물을 주고 있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3월초 기술센터로부터 비올라를 건네받아 도심 거리 등지에 심을 예정이다.

/위치기자 jwii@kwangju.co.kr

"최루탄 망령 부활 절대 안된다"

경찰 사용 검토에 시민·정치권 강력 반발

경찰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최루탄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루탄은 최근 10년간 모습을 감췄던 경찰의 과거 강경 시위진압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독재 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0일 광주·전남지역 정계와 시민 단체 등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 국회에서 "폭력 시위 진압을 위해 최루탄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경찰련 최주영 부장은 "최루탄 사용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이명박 정부가 현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

항소심도 '존엄사' 인정...논란 가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 만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이처럼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조건을 제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측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에는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본질적 구성요소이므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장치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며 "다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재판부가 제시한 기준이 개별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김석기 내정자 사퇴

'용산참사' 이후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0일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기사 4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청 청 1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용산 사고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 내정자와 서울경찰청장 직에서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김 내정자의 자진 사퇴에 따라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돌입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는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과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후임 서울경찰청장은 주상용 대구경찰청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중국어 초보, 중국어 전공자, 중국교포, 중국인...

취업 지원 100%



페퍼니 어린이
중국어지도사

